

회원사 소식

남부햄

鄭永燮사장 선임

남부햄은 權泰殷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추대하고, 鄭永燮전무이사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으며, 權泰敬이사를 상무이사로 3월1일 승진, 발령했다.

鄭사장(53세)은 서울대 농대를 나와 무영농산 및 흥성축산 전무이사를 거쳐 지난 82년 남부햄 전무이사로 입사한 바 있다.

한편 간부급은 河은식 특판소장이 과장으로 승진되었다.

창립행사 및 체육대회

남부햄은 창립 기념일을 맞은 6월10일 경기도 송탄시 효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3백여 명의 전사업장 사원들이 전원 참석하여 씨름, 달리기, 축구, 배구 등 경기를 가졌으며, 제품의 시장 활성화에 주력함은 물론 노사간 격의 없는 대화로 흐뭇한 시간이 되었다.

동남육가공

수출입상사 설립

동남육가공(대표 李錫斗)는 수출입업무를 총괄할 주식회사 斗松을 설립했다. 지난해 설립된 동계열사 斗松은 李사장이 대표를 겸직하며, 직원 7명이 보강되어

앞으로 돈육 수출 등 업무를 전담, 활성화될 전망이다.

롯데햄·우유

유형별 처리과정

표준화

롯데햄우유(대표 姜晋佑)는 3·3 운동과 ACTION88운동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소비자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한다」는 경영방침 아래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서비스로 전국민을 친롯데화하는 것을 목표로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식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는 신뢰를 생명으로 전사원 상담실 요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실은 최고 경영자의 직속 스태프 부서로 조직이 편제되어 있어 소비자 불만 및 의견이 최고 경영자의 경영정책에 직접 반영되고 있으며,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는 외에 소비자 불만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담실 전문 요원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또한 불만의 유형별 처리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소비자불만 처리에 임하고 있다.

승진인사

롯데그룹은 4월1일자로 롯데햄·우유의 李廣祐이사대우를 이사로, 金世昌부장 金鍾健공장을 이사대우로 승진, 발령했다.

한편 롯데햄·우유의 인사에서

는 기획실 鄭淳兌실장(차장)이 부장으로, 張현규계장이 기획과장 대리로 승진되었다.

봉림축산

회원사로 가입

주식회사 봉림축산(대표: 朴贊南)이 1월3일부로 본 협회에 가입했다. 서울 마장동에 소재한 동사는 지난 89년 4월10일 창립했으며, 경북 김천시와 충남 당진군 2개소에 육가공장이 있으며 현대식 도축시설이 완비돼 있다. 전 종업원은 1백여 명이다.

봉림축산이 가입하므로써 회원사는 31개 사가 되었다.

안성축산

전화번호 변경

안성축산(대표 孫根洪)의 전화번호가 5월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0339) 374-4403

•0339) 72-1789

서신유통

崔전무, 중국 육가공 업계 시찰

서신유통(대표 安東官) 崔日煥 전무이사는 중국 육가공업계를 돌

아 보기위해 4월2일 축국, 17일 귀국했다. 崔전무는 북경과 길림성지역의 육가공업계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동사의 육가공 생산 및 기술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선진축산

남대현 전무, 부사장으로 승진

선진축산(대표 李元福)은 3월1일 남대현 전무이사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金계호씨를 부사장(육가공사업본부장)으로 영입했다. 한편 李인혁 회장은 2월23일 서울대 재학생 3명에게 장학금 1백68만원을 전달했다.

제일제당

金正淳 대표이사 경영 책임 맡아

지난 1월 10일자로 그룹임원 인사에 의해 金正淳대표이사가 회사 경영 책임을 맡게 됐고, 安是煥 전임 사장은 삼성항공 사장으로 전임됐다. 한편 삼성석유화학 孫永禧 사장이 상담역으로 추대되었다.

金正淳 대표이사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64년2월 제일제당에 입사해 줄곧 근무하면서 곡물사업본부장을 거쳐 '89년 대표이사 부사장이 되었다

또한 임원 승진에 따라 李鶴洙 상무는 전무로, 兪升在이사와 朴秀雄이사는 상무로, 鄭正市대우이사와 趙廷植대우이사는 이사로 각각 승진했으며, 金周亨 원료사업부장과 李水影 서울사업부장, 金鍾源 이천1공장장은 대우이사로 각각 승진했다.

한편 관리담당 朴魯斌 이사는 삼성중공업으로 옮겨가게 됐다.

한편, 제일제당의 간부급 인사에서는 육가공사업본부 육가공원료팀 洪석걸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되었다.

원료의약품공장 준공

제일제당은 3월16일 제약업계·학계인사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서 국내 최대 규모 첨단 「원료약품 복합사료 콤비나트(대소공장)」준공식을 갖고 최근 폐니실린 항생제 대체품으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있는 세파(Cepha)계 항생제의 중간원료 물질인 「7-ACA」 등 원료의약품의 본격생산에 들어갔다.

4백억원을 투입해 대지 4만평, 건평 6천평 규모로 1차준공된 원료의약품 공장에 이어 제일제당은 앞으로 완제 의약품공장과 의료용 구공장까지 추가 건설, 대소공장을 원료에서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괄공정이 이뤄지는 대규모 종합계약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된 원료의약품공장에서는 이미 생산을 개시한 「7-ACA」와 소염효소제 「세라치오펙티다제」를 비롯, 올해 안에 7종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CICA-91 운동 전개

의식의 대전환을 통해 91년까지 튼튼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한 CICA-91운동을 전개했다.

CICA는 변화를 뜻하는 'Change'와 혁신을 뜻하는 'Innovation', 도전을 뜻하는 'Challenge' 그리고 성취를 뜻하는 'Achievement'의 머리글자를 모아 만든 것이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CICA-91 사무합리화운동이 지난 9월부터 시작됐다.

영문 상호 변경

영문상호를「Cheil Sugar & Co. Ltd.」에서「Cheil Food & Chemicals Inc.」로 바꾼바 있는데 이는 소재식품 사업에서 가공식품·의약품·유통·외식업 진출까지를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주햄

여자 핸드볼팀 창단

진주햄은 3월12일 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을 인수 (株)진주햄여자핸드볼팀의 창단식을 가졌다.

인천 올림포스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창단식에는 심재홍 인천시장을 비롯, 朴載益 조양그룹 부회장, 김현규 대한핸드볼協 부회장 등 관계요인이 참석했는데 이날 차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진주햄은 구룹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유망선수발굴 및 선수관리로 경기력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

편 핸드볼팀의 단장은 姜皓文상무가 선임됐다.

동경서 지점장 회의

진주햄은 1월 11~1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동경에서 전국 지점장회의를 개최.

이번 지점장회의는 지난해까지 3년연속으로 영업실적이 목표를 초과달성해 예년과 달리 해외에서 회의를 개최, 영업팀의 사기를 북돋아주기위한 것으로 전국지점장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논산공장 준공

(株)眞珠(대표 辛廣允)는 2월 10일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왕암리산 20-6에 대지 1만3천평, 건평 4천 7백평 규모의 논산공장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한 眞珠논산공장은 햄·소시지·냉동식품·포장육 등을 생산하게 되는데 생산규모는

연간 약1만5백톤이다.

이 공장은 CLASS 1만 완전 무균실과 우레탄 PANEL형 냉장고 및 공장동, 최신 SCREW방식의 저온분리식 냉동기가 설치돼 있으며 특히 최첨단의 미생물 방지용 건축자재로 시공, 제품의 품질을 고급화했으며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이다.

한편 이번에 준공을 본 논산공장은 지난해 3월 착공, 만 1년만에 완공됐으며 총1백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특히 (株)眞珠 논산공장의 가동으로 진주햄은 기존양산공장의 축육시설 1일 30톤 규모와 함께 1백%가 늘어난 65톤의 축육 생산능력을 사실상 갖추게 됐으며 어육 45톤, 포장육 5톤, 계맛살 25톤, 냉동식품등을 포함할 경우 총 1백35톤(하루 8시간 기준)의 제품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체육대회 가져



진주햄은 5월19일 오류동 현송 문화재단 럭비구장에서 서울·경기지역 춘계 체육대회를 갖고 스포츠를 통한 임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졌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지점 및 대리점 직원 등 8백여 명이 참가, 축구·릴레이·발야구 등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한편 체육대회 개최에 앞서 朴載福사장은「운동 경기를 통한 직원간의 친목도모와 이해 증진으로 보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창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금년도 매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강조.

승진인사

진주햄은 金基年영업부장을 이 사대우로 승진, 발령하는 등 각 부서별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획실 과장 李돈우 △ 축산부장 葉효준 △ 총무부(본사) 과장 白기운, 崔영섭, 徐보흠, △ 업무부 과장 金종열 △ 생산관리부장 鄭규현, 과장 朴중희, 구자윤.

펭귄

대표이사 社長에

尹正吉상무

펭귄은 3월1일자로 대표이사 사장에 尹正吉상무를 선임하고 전임 黃鳳變사장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했다.

이에앞서 2월27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및 韓柱一씨를 이사로 선임했다. 간부급 인사에서는 張萬淳과장과 丘殷燮과장이 각각 차장으로 승진되었다.

한편 지난해 매출액은 4백42억여 원을 올렸으며 1억4백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91목표 달성 대회

펭귄(대표 尹正吉)은 3월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대전 유성관 광호텔에서 「펭귄 팀스피리트 '91 목표 달성대회」를 갖고, 사원들의 극기력 배양을 위한 산악훈련을 계룡산에서 가졌다.

CI작업 완료

88년 11월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를 「주식회사 펭귄」으로 변경한 동사는 곧이어 C.I도입을 결정, 올해 초 디자인작업이 완료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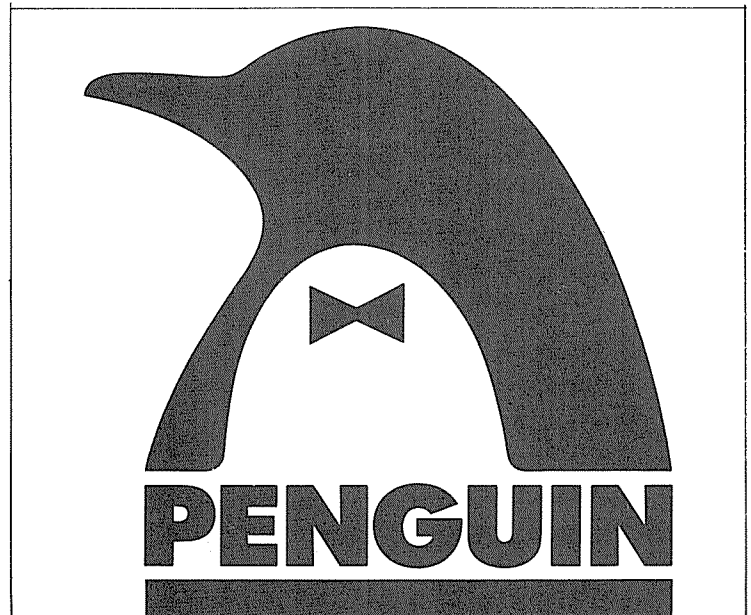
는데 이를 계기로 진정한 의미의 종합식품회사로 발전한다는 회사의 중장기적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했다.

기업활동의 궁극적인 평가는 소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며, 이번 C.I의 추진과정에서 보여 준 동사의 모범적인 전사원 호응이 그 적용과정에서도 다시한번 진가를 발휘, 소비자의 엄중한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얻어 세계적인 종합식품회사로 도약할 것을 재 다짐했다.

전화번호 변경

펭귄의 육제품사업부 전화번호가 6월1일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822-1811~5



한국냉장

사업활성화

한국냉장(대표 辛建鎬) 오는 92년까지 육가공사업을 66.66%늘려 육가공사업 기반을 확충시키는데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냉장사업도 현 전국처리 물량 1.8%에 달하던 것을 5%로 점유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육가공사업을 90년에는 19.44% 늘어난 86억원을 비롯 ▲91년에는 38.88%증가한 1백억원 ▲ 92년에 66.66% 늘어난 1백20억원을 각각 늘려 육류사업 기반을 적극 다져 나가기로 했다.

상표 통일화 작업

한국냉장 육가공제품에 대한 상표 통일화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냉 이미지제고를 통한 판매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상표 통일화작업은 현재 전 육가공제품에 대한 상표 도안에 들어가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장육 용도별 포장

한국냉장이 수입쇠고기 고급육을 포장육으로 생산, 시판에 들어갔다.

한냉이 생산, 시판하는 고급 포장육은 구이용, 국거리용, 산적용 등의 용도별로 포장됐는데 스테이크용인 안심·등심의 경우는 1백50g~1백80g 정도의 덩어리고기를 한용기에 4~5개씩 넣는 식으로 포장됐다.

한일식품

직영 도계장 신축

한일식품(대표 車相協)이 도계장을 완공, 자체 도계작업이 가능해졌다.

한일식품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소재 공장내에 시간당 7천 수 도계처리 능력의 도계장을 3월7일, 완공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한일식품은 기존의 급냉실(일20톤), 냉동실(2천6백톤), 예냉실(5백톤) 등 냉동 창고시설과 함께 위생적인 도계 가공처리 가능해졌고 특히 한일사료, 한일농원 등 계열사와 연계활동을 펴므로써 거의 완벽한 통합 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한일식품은 현재는 통닭만을 생산하고 있지만 하반기중에 부분육 및 가공품을 생산 직접 판매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한일식품의 금년도 계열 생산계획은 1월~3월 매월 30만수, 4월~6월 매월 45만수, 7월~9월 매월 50만수, 10월~12월 매월 60만수 등 총 5백50만수로 계약농가는 2백93호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89년 1백80만수 생산의 3배에 달하는 물량이며, 계약생산 방식은 병아리를 수당 2백50원에 공급해 주고 kg당 8백70원에 고정 구매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계약생산에 참여한 한 농가의 수익을 보면 무감

별 사육한 경우가 kg당 1백23원, 암수 구분 사육한 농가는 암컷이 kg당 1백34원, 수컷은 kg당 1백57원의 소득을 올려 암수 구분사육이 경제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협진축산

柳哲培사장 취임

협진축산은 5월1일부로 咸聖樺 대표가 모기업인 협진식품 영업을 사로 전보됨에 따라 (주)협진가柳哲培사장이 취임했다.

柳사장은 53년생으로 부산수산대를 나와 지난 86년 9월부터 협진가 대표로 재직해 왔었다.

대경식품

회원사로 가입

대경식품(대표 兪昊植)이 6월 1일부로 본 회에 가입했다. 지난 88년 4월6일 설립된 동사는 경기도 광주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햄, 소시지 등 2차 가공제품과 핫도그 등을 생산하고 있다. 설립자 兪사장(55년생)은 동국대 식품공학과 나와 제일제당, 코델리에 재직한 바 있으며 서독 STUTTGART소재 육가공 전문점 "OTTOBELZ"사에서 2년여 기술연수를 받은 바 있다.